

오바마 “IS 돈줄 막고 끝까지 쫓아가 파괴할 것”

“소극적 대응” 비판 의식한 듯... 지상군 투입엔 ‘불가’ 고수

최소 130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국가(IS) 대응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연설에서 IS를 소셜 미디어로 무장한 살인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레스토랑과 호텔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뉴 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들을 무찌를 힘이 없다는 생각도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ISIL(IS의 다른 이름)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고

지도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조직망과 공급망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괴(destroy)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IS에 대해 ‘파괴’라는 용어 대신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격퇴’(defeat)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괴나 말살의 뜻을 담은 강한 어감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자신이 IS에 대해 지나치게 무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 불과 12시간 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에 대한 봉쇄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IS 지도부를 무력화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발언에 논란에 휩싸였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물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나서 ‘IS는 봉쇄가 아니라 격퇴되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관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높아진 발언 수위가 전략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 전체가 IS를 격퇴하려면 미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 지상군 1만 명 투입을 공개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상군 투입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지상군 투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역시 지상군 투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 전략 고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22일 CNN 방송에 출연한 미 전문가들은 IS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진 점을 거론하면서 과연 어떤 달라진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8 유방의 1급 책사 장량

장량(張良, ?~BC 189)은 백수건달 유방을 한 제국의 황제로 만든 최고의 책사다. 장량이 없었다면 한 고조 유방도 없었을 것이다. 한신·소하와 함께 건국 3걸로 불린다.

그는 전국시대 한나라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자는 자방(子房)이다. 진시황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기에 따라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일찍부터 반진 기사를 활약하였다. BC 218년 천하를 순시중인 진시황 암살을 기도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반진 기치를 내건 유방의 진영에 백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투항했다. 둘은 처음부터 의기가 투합했다. 항우를 쥐고 천하를 통일하기 까지 둘은 형제처럼 부부처럼 늘 운명을 같이 했다. 그는 용모가 뛰어나 아내처럼 보였지만 병법에 조예가 깊고 담력과 식견도 남달랐다. 특히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뛰어났다. 유방이 고비마다

라를 평정한 후 자신을 제왕으로 임명해 달라고 주청했다. 유방은 격노했다. 그는 유방을 설득해 한신을 왕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한나라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한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를 왕으로 세워 제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청했다.

항우와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경포, 한신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천하(共天下) 구상을 제시한 것도 그였다. 공천하는 천하를 공동으로 항우하자는 제안으로 유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과격적인 내용이었다. “만약 한신이나 팽월 등에게 큰 땅을 내준다면 그들은 각자 전투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면 초나라 군을 가볍게 격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방은 그들에게 흔쾌히 땅을 나눠줄 것을 약속했다. 그들이 병력을 이끌고 유방군에 가담함으로써 해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하통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위기마다 기지 발휘...한신·소하와 漢건국 ‘3걸’

위기를 벗어나 세를 기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안목과 지략 때문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암살 실패 후 도피 중 황석공으로부터 대공병법서를 배워 위 전략의 진수를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의 지략이 발휘된 첫 번째 사태는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해 초청한 홍문(鴻門)의 연회였다. 그는 유방을 제거하려는 항우의 계락을 사전에 파악해 절제절명의 순간에 유방을 지체 없이 업호해 사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유방이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항우에게 알렸고 유방이 남긴 선물을 전달했다. 유방 살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항우의 참모 범증은 칼을 빼들어 선물을 깨뜨려버리며 “어린아이 하고는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구나.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반드시 유방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대 그의 포로가 될 수 밖에 없구나”라며 안타까워했다.

팽성전투에서 유방이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항우에게 참패했다. 그는 용맹한 항우에게 대항하기 위한 계획으로 한신·팽월·영포가 힘을 합치는 통일전선을 제시했다. 유방은 그의 건의를 수용했고 점차 관계는 유방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신이 제나

그의 통찰력이 빛을 발했다. 천하통일 후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중신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낙양과 관중이 경합하였다. 유방 휘하 장수 상당수가 중원이나 남방 출신으로 낙양을 지지하였다. 참모 누경은 지리, 경제, 정치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장안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낙양은 땅이 좁고 매말랐으며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누경의 지지해 뜻을 관철했다. 관중이 물과 말이 풍부하고 반란에도 대처하기가 쉽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천하통일 후 공신인 유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병을 핑계로 집에 머물면서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BC 189년 장안에서 병사했다. 유방이 한신, 경포, 팽월 등 공신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지만 그는 무사했다. 그 모습에 마치 맑은 시냇물이 세상을 피해 졸졸 흘러내리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유방은 자신이 천하를 통일한 이유로서 “군영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에서 자신이 장량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사마천은 장량의 공적은 하늘의 뜻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진실로 뛰어난 유방의 책사였다.

프랑스 “휴전은 없다”

샤를 드골호 IS 격퇴전 가세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 호가 23일(현지시간) 지중해 동부 시리아 연안에 배치돼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22일 현지 라디오 유럽1과 인터뷰에서 “샤를 드골 호 함재기가 내일부터 시리아 내 IS 공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느 나라의 군사적 합류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샤를 드골 호는 지난 18일 모항인 프랑스 툴롱항을 출발했으며 23일 지중해 동부 시리아 연안에 도착한다. 전투기 26기를 싣고 있는 샤를 드골 호가 가세하면 프랑스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에 배치된 기존 12기와 합쳐 총 38기의 전투기로 IS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영국은 샤를 드골 호를 지원하고자 해군 전투함 ‘HMS 디펜더 호’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리아로 출항 프랑스의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 호가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모항인 툴롱 항을 떠나 시리아 쪽으로 출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샤를 드골 호를 지중해 동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남북 실무접촉서 장관급 회담 개최 논의

남과 북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8년여 만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당국회담 개최 예상

시기와 관련, “11월 26일 실무접촉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12월이나 가 능할 것”이라며 “(당국회담은 ‘8·25 합의’에)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얘기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얽히고설린 남북관계 현안을 풀려면 장관급 당국회담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에 8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려면 넘어야 산이 많다. 우선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북측은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 때 남측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내각 책임자를 내세웠다.

내각 책임자는 당 부부장급으로, 우리로서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또 남과 북은 당국회담에서 다른 의제

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등 양측이 우선시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도 우리측은 큰 틀에서 의제에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측은 6자 회담이나 북미 회담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반박할 공산이 크다. 남북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수석대표의 급 등을 협의하는 실무접촉에 나선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